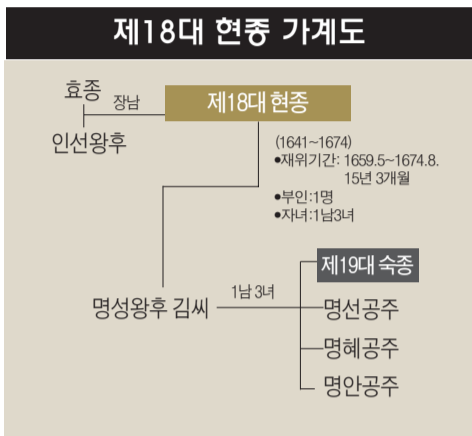


신하들 예송논쟁에 구석으로 내몰린 왕권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⑦

18대 현종과 원비 명성왕후 - 승릉
현종 1641~1674(34세)
재위 1659.5(19세)~1674.8(34세)



국사청 복장문제는 효종 때부터 현종 때까지 서인·남인의 주도권 싸움으로 부각됐다. 사진은 희령의 제향 모습.

사람은 태어날 때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 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숫나리과파, 657>

조선 왕 중 유일하게 남의 나라에서 태어난 왕, 그 흔한 후궁 하나 두지 못하고 정비 1명뿐인 왕이 현종이다. 현종은 아버지 봉림대군이 어머니 풍인부부인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있던 시절에 심양의 심관에서 태어났다. 출생부터 파란만장하다.

다섯 살 연(현종의 이름)이 부모를 따라 귀국한 것은 1645년(인조23)이었다. 소현세자가 급서하자 봉림대군이 세자가 책봉되고 연은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효종이 즉위하자 세자가 되고 1659년 부왕의 뒤를 이어 18대 왕으로 등극했다. 즉위식은 화려했으나 재위기간 내내 꺾전을 두드리는 방망이질에 시달렸다.

현종시대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대전을 찌랑찌랑 울린 시대였다. 왕권을 구석에 밀쳐버리고 신하들의 예문정쟁이 창처럼 치솟아 나라를 흔들었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몇 년간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 국력을 오로지 거기에 쏟았다. 서인의 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기년상(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의 허목과 윤류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기년상을 주장한 서인의 승리였다.

1673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복상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다. 이번에도 서인측은 효종이 차남이란 점을 강조하여 대공설(9개월을 내세웠고, 남인측은 인선왕후가 비록 둘째 며느리이긴 하지만 중전을 지냈으므로 큰며느리나 다름없다고 기년설(1년을 내세웠다. 현종은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 측의 기년설을 받아들여 자의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다. 서인과 남인의 1승1패다.

논쟁은 표면적으로 왕실의 장례 문제인 것 같지만 예를 최고의 덕으로 여긴 성리학의 문제다. 더 깊은 속내는 율곡학파인 서인과 퇴계학파인 남인 간의 정권 주도권을 둘러싼 이념논쟁이다. 또한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제다. 신하들의 입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다.

현종조는 신하들 목소리 못지않게 또 다른 목소리



서울대 규장각 소장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일부.



승릉 전경.

서·남인간 정권 주도권 둘러싼 이념논쟁 심화 과격한 명성왕후 기에 놀려 후궁조차 못들여

가 있었다. 중전의 목소리가 당파를 형성한 신하들과 합세했다.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했다. 거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명성왕후의 아버지 김우명은 학문에 관심이 없는 위인이었다. 진사시만 치고 강릉(康陵, 명종 왕릉) 능침봉을 거쳐 종9품인 세마(洗馬)직이었는데 현종 즉위로 딸이 중전이 되니 하루아침에 정종부원군에 봉해져 정1품 대우를 받았다. 김우명은 서인이건 남인이건 뒷거래를 해오면 결탁했다. 용감하고 탐욕스런 인물이었다.

명성왕후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 궁중 일

을 처리할 때 인자한 면모가 없었다. 현종은 30대 쫓겨난 나이였지만 후궁 하나 들이지 못했다. 기록은 없지만 짐작은 간단. 현종이 죽고 아들 숙종의 등극 이후에는 공공연회 조정의 정무까지 관여하여 서인들 편을 들다가 남인들의 반발을 샀다.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을 내쫓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장희빈의 집안이 남인과 가까웠던 것이 이유 중 하나다. 숙종 1년에 '홍수의 변'이라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났다. 홍수(紅袖), 즉 붉은 옷소매란 궁녀를 가리킨다. 복장군, 복성군이라는 왕족이 숙종의 궁녀를 건드려 아이를 낳은 사건이다. 두 죄인은 궁녀와 함께 익금부에 하옥되고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다음 날 돌연 두 죄인은 풀어주고 궁녀만 사형에 처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조정 대신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대신들이 내전에 달려가 보니 어리둥절한 광경이 펼쳐졌다.

숙종이 방 밖에 꿇어앉아 있고 방안에선 방바닥을 치며 요란한 대성통곡이 울려 퍼진다. 곁에 질린 대신들은 할 말을 잃었다. 방안에서 악을 쓰며 통곡한 이는 명성왕후였다. 결국 두 죄인은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중전을 죽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아들(숙종)을 협박한 것이다. 대단한 여인임에

틀림없다. 이름이 비슷한 26대 고종의 비는 명성황후(明成皇后)다. 그녀 역시 함량이 만만치 않다.

현종은 남인과 서인의 극단적인 예문정쟁에 시달리다가 1674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다. 명성왕후는 10년 더 살다가 1683년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다. 현종은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왕이 죽으면 곧 실록 편찬 작업에 들어간다. 현종실록 편찬 작업은 1675년 5월에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정권을 장악했던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1677년 왕(숙종)의 독촉이 있자 편찬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고 묘사유파법(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법)이란 걸 만들어 급히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초고를 완성했다. 초고를 바탕으로 4개월 뒤에 인쇄를 완료했다.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당하고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자, 앞서 편찬된 '현종실록'이 왕의 독촉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미흡한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숙종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실록개수청을 설치하고 개수 작업을 시켰다. 그래서 3년만인 1683년 '개수 현종실록'이 완성되었다. 현종은 참으로 어지럽고 분명한 인생을 살았다.

성리학이 가장 첨예한 시대이니 불교적 발달과 논리는 끼어들 틈이 없는 혹독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결국 이타(利他)가 아닌 이기(利己)를 위한 치열한 도구였을 뿐이다. 승릉은 동구릉 능역 중 가장 왼쪽 호숫가에 있다. 살아생전 온갖 논쟁에 휘둘러 편한 시간 갖지 못했으니 죽어서는 조용히 지내시라는 배려일까. 왕이 대신들의 입김에 질질 끌려 다녔으니, 안타까운 군주였다.

승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정자각에 팔각지붕을 얹었다. 사대모화, 성리학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이니 전래의 맞배지붕 정자각이 아닌 중국 양식을 흉내낸 것이다. 우리 고유의 정자각은 지붕 양쪽 옆면을 단정하게 정돈한 맞배지붕 형식이다. 검약, 검소, 단아함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승릉의 정자각은 지붕이 불거져 나온 팔각지붕이다. 맞배지붕 양 옆으로 지붕을 덧댈아 놓아 하늘 위에서 보면 여덟 팔(八)자 모양이어서 팔각지붕, 팔각지붕이라 부른다. 거기다가 정자각엔 익랑(翼)의 좌우에 잇대어 지은 행랑이 기둥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능호인 승(崇)자 역시 모하승배자들이 작명한 것 같다.

글=이우성(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승릉(崇陵)
조선 18대 현종(顯宗)과 원비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 김씨의 생릉이다. 동구릉 능역 안 가장 왼쪽 언덕에 있다. 왕과 왕비들 모두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으로 연결되었고 능침 앞에 혼유석이 각각 놓여 있다. 동구릉=사적 제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 면적 191만5891㎡(57만9567평).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에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수비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벨트 옆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거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정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저수 대진 입장

필름